

기도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기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새로운 생명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4,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사무엘상 13:13-14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양 /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5:23-28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9월 “기도의 달”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만남/나눔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 수련회 오늘 하루 교회에서 가집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사역에 힘을 모우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듭시다.
 - 노동절 내일 친교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 PCoP 사역 협력 Rummage Sale (9/17)을 위해 9/11까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 건물 미화(페인트 작업 및 섬김의 교회 배너 설치)에 제안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전도와 섬김 교회로 인도할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깁시다.
 - 찬양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을 격려하고 성령의 인도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자녀들과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9월의 사역 - 수련회(교회, 9/4) 노동절(9/5, 친교) 만남/나눔 주간(4-10)
성장/성숙 주간(11-17) 소금/빛 된 주간(18-24)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10/1)

♥9월 영영축복♥ 이정운(30)

기도제목

-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8/28	9/4	9/11	9/18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8/28	9/4	9/11	9/18
	구 민집사/유동숙집사		구은강집사/최내권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 / 출애굽기 18:19-27

새로운 재판 제도를 시행하는 모세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는다. 우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세우신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출발점이다. 모세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재판제도를 수용했듯이, 우리도 익숙한 방식, 늘 해 오던 관행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옛것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새시대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며, 복음을 더 은혜롭게 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 시무엘상 13:13-14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의 칭찬을 듣자.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거기에 자신을 맞추자.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 사무엘상 13:13-14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수련회를 가진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인가.

다윗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었을까? 마음이 순수했고, 사사로운 욕심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 얻게 될 상급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형들은 동생 다윗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다윗 역시 죄인이었다. 간음과 살인교사란 무서운 죄를 범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만을 걸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신의를 배신하고 이중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하며, 거짓과 타협하며, 권모술수도 사용했다.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행 13:22).

다윗은 항상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 다윗은 전투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찾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욕심보다 우선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 결점이 많고 성숙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이 꺼리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자.

친 형제도 제 각각인데 한 교회의 성도 모두 다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된다. 기도와 말씀묵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섬김의 교회도 ‘모이면 가르치고,’ ‘역동하여 흠어지며,’ ‘부흥하고 전도하여’ 칭찬들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나의 길이나? 그리스도의 길이나?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나의 야망은 어떠한가? 그것이 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괜찮은가?”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일을 행하는 데 익숙하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인정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그리스도와 영광과 결실과 미래와 앞으로
올 세상을 얻으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을 갖게 된다. 그 모든 것을
받기 전에, 당신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해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혜 안에 있는 은혜로운 계획이고
공급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계속해서 뽐내고
자랑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키우고 자아를 먹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안에 그런 이기적인 주장을 허용하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며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삶과 인격의 변화에 필히 정도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음, 이제 그것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이 초상화에 서명을 하셨다. 나는 나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실제적인 적용과 그것이 날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세례 요한은 오래전에 그것을 깨닫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했다.

반드시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당신의 결단과 헌신은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매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함에 따라 평안과 능력과 결실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나의 길이나, 그리스도의 길이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인가? 여전히 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분노, 증오, 실망, 두려움, 욕심, 슬픔
수많은 감정들이 내 마음 속에서 요동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피가희, 피가인 작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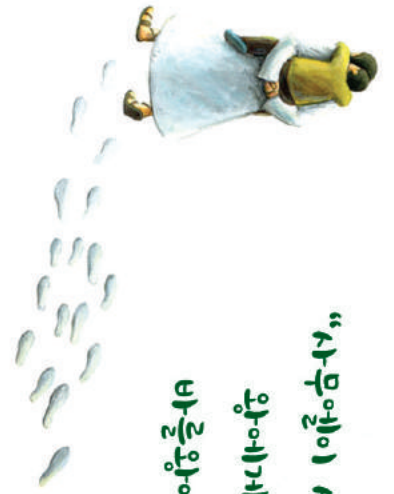
사무엘서 13장 13-14절

"고대사도행복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고대사도행복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고대사도행복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그 큰 세상이평화야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